

■ 박성화호, 오늘 시리아와 올림픽 축구 2차 최종 예선

김승용-이근호 ‘찰떡궁합’ 기대

〈3경기 연속 도움〉 〈2경기 연속 골〉

“3경기 연속도움” 김승용(광주)과 “2경기 연속골” 이근호(대구)가 3연승을 노리는 박성화호의 강력한 공격엔진으로 찰떡궁합을 선보인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2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최종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2-1승)과 바레인(1-0승)을 잇따라 꺾은 대표팀은 약체 시리아와 3차전을 앞두고 공격축구를 통한 다득점에 초점을 맞춰 최초의 3연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팀은 바레인 원정에서 이근호, 최철순(전북) 등 주축 선수들이 결정했음에도 ‘멀티플레이’ 능력을 앞세운 김승용과 이상호(울산), 백지훈(수원)의 활약과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서울)의 안정된 수비와 패스연결을 통해 전력누수를 최소화했다.

박성화 감독은 시리아전에 이근호와 최철순, 이승현(부산)이 복귀하는 만큼 보다 안정된 전력과 조직력으로 최종예선 무패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근호와 최철순의 복귀로 잠시 흐트러졌던 선수들의 포지션이 제모양을 갖추면서 스피드와 돌파력을 겸

4-3-2-1 전술...3연승 자신

하태균·신영록 중 원톱 기용



비한 이근호-김승용 콤비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추게 된 게 다행이다.

이근호는 한동원(성남)과 더불어 자타공인의 올림픽호 주요 득점루트다.

한동원이 2차 예선 초반에 4골을 터뜨린 뒤 소강상태에 빠지자 이근호의 발끝이 불을 뿜으면서 2차 예선 최종전(2골)과 최종예선 1차전(1골)에서 3골을 몰아쳐 대표팀의 연속가도를 이끌었다.

이근호가 골을 넣는 사이 김승용은 열심히 불을 배달했다.

김승용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시작으로 최종예선 우즈베키스탄전과 바레인전에 연속으로 도움을 기록해 3경기 연속 도움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승용은 최종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프리킥으로 도움을 기록했고, UAE전에서는 이근호의 골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번 시리아전 역시 좌우에서 이근호와 김승용이 수비라인을 흔들고,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골로 마무리하는 전술이 주요 공격루트가 될 전망이다.

박 감독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만큼 4-2-3-1 전술을 앞세워 하태균이나 신영록(이상 수원)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골 결정력이 뛰어난 ‘멀티플레이어’ 이상호(울산)를 새도 스트라이커로 내세울 공산이 크다.

백지훈(수원)-기성용(서울)을 ‘더블 볼란테’로 기용하고 포백(4-back)에는 최철순-강민수(전남)-김진규(서울)-김창수(대전)가 호흡을 맞춘다.

또 목 부상을 당한 정성룡(포항)을 대신해 바레인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송유결(인천)이 골키퍼로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시리아 어떤 팀

시리아는 이번 올림픽 최종예선 B조 팀 가운데서는 비교적 무난한 상대로 평가된다.

시리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112위로 한국(50위)은 물론 우즈베키스탄(58위), 바레인(92위) 등 B조 팀 가운데

FIFA 랭킹 112위...올림픽팀간 첫 대결

가장 처진다.

시리아가 올림픽 본선에 나선 것은 1980년 모스크바 대회가 유일하다. 당시 본선에서는 1무2패로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한국과 올림픽대표팀 간 맞대결은 이

번이 처음이다. A대표팀은 네 차례 맞붙어 한국이 2승1무1패로 앞서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2007 아시아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고, 홈에서는 1-1로 비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팬 야유 흥분→관중석 돌진→2군경기서 퇴장

안정환 상벌위 회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기도중 극성 팬의 야유에 흥분, 관중석에 뛰어들었다가 퇴장당한 안정환(31·수원)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프로연맹은 11일 “상벌위원회를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며 “안정환에게 참석을 통보했지만 직접 나오지 못할 경우 소명자료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고 밝혔다.

안정환은 지난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FC서울과 2군 리그 경기에 선발출전해 전반 33분 주심의 허락없이 그라운드를 벗어나 자신에게 야유를 퍼부은 FC서울 서포터스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쫓겨났다.

K-리그에서 선수가 관중석에 직접 뛰어 들어 팬들과 직접적인 마찰을 빚은 것은 안

정환이 사상 처음.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감독관을 불러 당시 정황을 보고를 받는 등 진상과 약에 나섰고, 결국 ‘안정환 사건’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제3장 18조 17항에는 ‘경기 전·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지도자,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인사적 행위에 대해 4~8경기의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 징계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9조 ‘기타 위반사항’에는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선수나 지도자에 대해 2~6경기 출장정지와 경기당 벌금 1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돼 있다.

상벌위원회는 안정환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은 뒤 어떤 상벌규정에 해당하는지 결정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기현과 출전문제로 불화”

레딩 코펠 감독 밝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의 스티브 코펠 감독이 설기현(28·폴럼)을 이적시킨 배경에 대해 털어놓았다.

코펠 감독은 11일 구단 홈 페이지를 통해 “지난 시즌 설기현을 정기적으로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그를 놓치고 말았다. 설기현은 자신감이 넘친 선수였고 모든 경기를 뛰고 싶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몇 경기에서 설기현을 뺐는데 그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로 인해 서로 관계가 틀어졌고 설기현은 시즌 막판 다른 팀으로 옮길걸 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1부리그로 승격된 레딩에서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시작한 설기현은 시즌 초반에는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주전을 굳히는 듯 했다. 하지만 후반기들어 출전 기회가 점차 줄어들면서 코펠 감독과 불화설이 나돌았고 결국 지난 1일 폴럼 수비수 리암 로시니어(23)와 트레이드됐다.

PGA 페덱스컵 최종전 투어챔피언십 내일 개막

숨가쁘게 달려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1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골프장(파70·7천154야드)에서 열릴 투어챔피언십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투어챔피언십 이후 가을시리즈라는 이름으로 7개 대회가 더 열리지만 이는 투어챔피언십 출전 선수 30명을 뺀 나머지 선수들이 내년 출전권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패자 부활전’일 뿐이다.

4개 대회로 이뤄진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챔피언십은 살아남은 ‘최후의 30인’이 상금 1천만달러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무대이다.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골퍼 ‘땡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도 세계 최고수들만 나갈 수 있는 투어챔피언십 출전자 명단에 당당히 올라 있다.

하지만 우승상금을 최경주가 차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10일 끝난 플레이오프 세번째 대회 BMW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미국)가 우승을 차지하고 최경주가 공동 38위에 그쳐 ‘자력 1위’는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1천만달러의 주인공은 우즈가 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나주에 온 세계적 여자 당구스타들



11일 나주시 다도면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2007 인터내셔널 빌리어드 챌린지’ 트릭샷에 참가한 자넷리(위쪽)와 처유람(가운데 왼쪽), 김기영(가운데 오른쪽)과 사벌 로레인(아래) 샷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